「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2호(2016 여름): 299-323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0 No.2 (2016 Summer)
http://dx.doi.org/10.20484/klog.20.2.13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대한 지역요인의 영향 연구*

최 예 나

국문요약

본 연구는 다양한 지역요인(지자체 특성,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적자원 요인)이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일자리 양과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해('09년-'14년)의 지역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모형으로 고용현황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자체 요인 중 재정자립도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둘째, 사회적 요인 중 고령자 비중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과 질에 모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인구 비중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적 요인 중 지역생산수준(지역내 산업체 종사자수)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에, 그리고 실업률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에는 부(-)의 영향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지역내 인적자원은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고용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내 고령자 비중이 높을수록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고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조건 개선 등 인력유인정책을 마련해야 하다. 셋째, 지역생산 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균형있는 산업정책을 통해 사회서비스 산업을 동반육성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는 여성인력 활용 등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인력을 늘리고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산업과 고용성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정책이 필요하다.

주제어: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일자리, 일자리 양, 일자리 질, 지역요인

Ⅰ. 서론

최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청년, 중고령자 등 다양한 세대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도 4월, 한국의 실업률은 4.9%, 청년실업률은 12.5%를 기록하면서(한국금융신문, 2016.4.11.일자 기사)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예정이다. 이와 같이 국내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학자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 A010 11308).

은 제조업의 고용없는 성장과 특정 서비스업의 성장을 주목한다(김혜원 외, 2006: 1). 2003년 이후 꾸준히 수출제조업이 성장하였으나 이로 인한 고용증대 효과가 과거에 비해 미약하였고, 중국의 눈부신 산업성장과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등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었던 제조업이 조금씩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도소매업종과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 부가가치나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서비스 분야에서는 공적 특성을 지니는 사회서비스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김혜원 외, 2006: 1).

사회서비스는 기타 서비스에 비해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 유형 중 의료, 교육, 복지, 공공행정서비스 등은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사회서비스 부문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숙련도가 필요한 직종으로 평균이상의 임금과 안정성 등 고용의 질이 낮지 않다(김혜원 외, 2006: 2). 따라서 사회서비스 분야를 활성화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다면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국내 경제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여성 집약적 일자리로의 성격이 강한 특징이 있다(송다영, 2014). 일부 학자들은 향후 사회 양극화, 복지수요 증대 등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여성을 잠재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고리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지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모색은 시대적으로도 긴요한 부분이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가 정부 주도적으로 생산·공급되어 왔다. 최근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가 활성화되면서 복지정책을 비롯한 많은 분야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회서비스 산업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공급과정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분야로, 산업발달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김은정, 2014). 그리고 이와 같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지방정부의 특성, 지역경제 및 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지역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실무와 학계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또 다른 연구들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정책효과를 평가하였으며, 기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2차 자료를 활용하거나 사례들을 분석하는 등 실증조사에 기반한 양적연구가 많지 않았고, 지역단위에서 고용성과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수준의 양적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일자리 양과 질)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09년부터 '14년까지 다년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지역요인들이 고용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향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둘러싼 쟁점 분석

최근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근로빈곤, 계층의 양극화 등의 다양한 사회병리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과거 전통적 사회위기와 달리 중산층 붕괴와 가족해체 등의 '신사회위기'가 등장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서비스가 제시되고 있다(이재원, 2011: 334-335).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따라 한국사회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힘입어 정부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사회서비스 분야는 기존 복지서비스에서 새로운 전달체계 방식을 도입한 전자바우처 산업 등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이 때, 사회서비스는 이론적 논의보다 정책적 방향에 따라 운용되면서, 개념적 규정과 포괄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 사회서비스 정책은 수행과정에서 담당 부처간 혼선이 나타나는 등 안정적으로 시행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그러다 2011년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안이 통과되고, 2013년에 동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혼란이 줄어들게 되었다. 개정된 사회보장법 제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된다.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사회기반투자와 일자리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여, 사회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와 함께 산업부문에서 일자리의 의미를 모두 가지는 특징이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업대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의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등장하였다. 정부는 대량실업 등의 시대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안정망의 불충분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일부 중앙부처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일부사업에서만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에 의뢰하였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초기에 다소 협소한 범위에서 시작되었지만, 2003년부터 정부가 고용창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용정책과 사회서비스 확충방안의 교차점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시장 내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2007년 이후에는 높은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재정 외에 시장친화적인 방향의 확대가 강조되면서 사회적 기업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는 전통적인 복지정책과 달리 시장과 산업의 특징에 기반하여 발달하면서 사회서비스 산업의 개념이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서비스 수요의 발달과 함께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논의

는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산업적 관점의 사회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Browning & Singelmann(1978)의 견해를 선구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인다. Browning & Singleman은 서비스산업 분류에 기반하여 사회서비스에 사회복지서비스, 의료 및 건강서비스, 병원, 교육, 우편서비스, 공공행정 등을 모두 포함시킨다. 이후 Elfring(1988) 등 다양한 학자들이 Browning & Singelmann(1978)의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표적으로 Elfring(1988)은 정부서비스, 건강서비스, 교육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 4그룹을 구성하여 16개의 세부산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Scharpf(1990)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 서비스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해외연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를 강조한 김혜원 외(2006: 4)의 연구 등을 참고하여 사회서비스 산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를 기준으로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전체와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일부로 설정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취약계층의 고용과 복지문제 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전반의 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등 공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부의 주요 정책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1997년 이후 일부 중앙부처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최근 수요맞춤형 복지를 위해 분권화와 민영화가 강조되면서 주요 서비스 전달체계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결합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혼합형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경우, 사회서비스 공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서비스 공급자에서 서비스 공급체계 관리자로 변화 및 다각화되면서 그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지역자원 및 사회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지역사회 여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고용성과에 관한 여러 논의들

지역사회에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상당하며, 이는 고용성과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다. 일자리는 개인의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성장 및 복지수준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거나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나면서 일자리 부족과 고용불안정성 등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시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고용성과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다.

고용성과는 크게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먼저 양적인 면은 지역별 전체 취업자 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실업률, 고용탄력성 등으로 측정된다(조인숙 외, 2015; Belot and van Ours, 2000). 그리고 질적인 면은 최근 ILO(1999)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EU(2001)의 '일자리의 질(quality of job)', OECD(2003)의 '더 나은 일자리(better job)' 등으로 나타난다.

고용의 질 부분은 1990년대 이후 실업문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이 여전히 저

하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ILO, 2001). EU 보고서(2001)는 한부모, 비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자, 저학력노동자 등의 대표적인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유럽 노동자의 30%가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시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노동시장의 참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점차 이러한 사회변화현상을 반영하여 어떤 노동을 수행하느냐, 즉 '일자리 질'에 관한 부분이 중요해졌다.

일자리 질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산업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들 연구는 직무만족도, 사회적 위세, 경제적 보상 등에 치우쳐 있었다(박은하, 2011: 5-8). 이에 비해 최근에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일자리 질에 대한 논의가 발달하고 있다. 먼저 ILO(1999)는 괜찮은 일자리를 '자유, 평등, 안전, 인간의 존엄성 등을 통해 생산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로 설명하며, ①노동의 기회, ②자유로운 상태의 노동, ③생산적인 노동, ④평등한 노동, ⑤노동의 안정성, ⑥노동의 존엄성 등 6가지 차원으로 개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Anker et al.(2002)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지표를 형성하고 다음 11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11개 그룹은 ①고용기회, ②부적절한 노동 제외, ③적절한 소득과 생산적 노동, ④적정 노동시간, ⑤고용 안정성, ⑥일-가족 양립, ⑦공정한 대우, ⑧일자리 환경의 안전성, ⑨사회보장, ⑩작업장과 사회수준의 대화창구, ⑪괜찮은 노동에 대한 경제사회적 맥락으로 구성된다.

또한, EU는 유럽의 새로운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의 대응방안으로 '높은 질의 일자리(a high quality in work)를 제시하였다(EU, 2001: 65). EU는 새롭게 등장한 유연한 고용형태가 직업의 안정성과 직업훈련, 직업전망 등을 저하시킨다고 본다. 그래서 일자리의 질이 사회적 배제로 인해 나타나며 ①경력과 고용 보장, ②노동자의 건강한 삶 유지와 증진, ③기술 발전, ④일과 생활의 조화 등 4가지 요소가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세부적으로 ①고용의 지위, ②소득, ③사회보장, ④노동자의 권리, ⑤건강 문제, ⑥위험 노출, ⑦노동 조직, ⑧자격 요건, ⑨훈련, ⑩교육 체계, ⑪경력 발달, ⑫노동/비노동 시간, ⑬사회 인프라로 구성된다. 그 외에 OECD는 회원국들의 고실업 문제와 주요 약자들의 노동시장내 불공평한 입장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more and better jobs)'를 제안한다(OECD, 2003). OECD는 일자리의 질이 ①저임금과 임금불평등, ②직업 스트레스와 산업재해, ③파트타임과 임시고용, ④고용의 불안정으로 결정된다고 본다(OECD, 2003: 40-55).

이러한 국제기구의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점차 학계에서도 일자리 질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 방하남·이상호(2006: 96)는 임금수준, 직업적 위세, 직무만족도 등 3가지 척도를 이용하여 좋은 일자리 개념을 구성하면서 일자리의 질을 여러 차원에서 측정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최옥금(2005)과 김은하(2007)은 각각 ILO의 '괜찮은 일자리' 개념과, EU, OECD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일자리 질 개념을 차용하여 일자리의 질과 노동 생산성 및 분배관계를 국제 비교하였다. 그리고 박은하(2011)는 국제기구의 지표들을 포괄하고 한국노동시장의 특성 및 여성노동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①적절한 임금 수준, ②적절한 노동시간, ③고용 안정성, ④사회 보장, ⑤일-가족 양립 프로그램으로 규정하였다.

3.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논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성과를 결정짓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고용성과 측정 및 고용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하여 좀더 포괄적으로 관련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고용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국가수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다양한 거시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Belot and van Ours(2000)는 양적 측면의 고용성과인 실업률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수요충격, 통화정책 변동,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사용하고, 김기호·이규용(2011)은 고용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국민소득, 가계순저축율, 실질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주요 영향요인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서비스업 고용비중의 확대가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역수준의 고용성과에 대해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대표적인 연구로 Monastiriotis(2006)와 전병유(2006)가 있다. Monastiriotis(2006)는 영국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고용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고용성과의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으며, 전병유(2006: 233)는 지역의 고용성과는 지역특성적인 입지여건에 의해 결정되므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이나 인적자본 등을 확충하는 지역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둘째,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문순영(2008)은 국제기구의 개념에 기반하여 적절한 임금,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 안정성, 사회보장, 경력개발, 작업환경의 안정성 등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돌봄노동 일자리의 질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성균(2009)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ILO의 지표 등에 기반하여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복지혜택, 사회보험으로 구성한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정의하였다. 또한 최희경(2009)은 노인돌봄서비스에서 ILO의 지표를 활용하여 괜찮은 일자리 수준과 종사자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셋째, 양적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Damme, Kalmijn & Uunk(2009)은 이혼한 여성들의 취업에 교육, 근무경험, 건강, 어린 자녀 등의 개인적 요소와 공공 탁아서비스, 보조금 등의 제도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또한 Mancini, Lawson(2009)은 정신건강서비스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감정적 노동을 지원하는 조직문화가 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침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에서는 김혜원 외(2006)가 사회서비스의 노동 수요와 공급에 소득의 증가, 저연령집단과 고령인구 등의 인구학적 요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정부지출의 증가, 제조업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혜원(2010)과 박수지 외(2013) 등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민소득과 여성고용율, 총부양비, GDP 대비 조세 등이 광의와 협의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에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외에 최예나(2016)는 개인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원 요인, 가족구조 등의 개인요인과 지자체 요인, 경제적·사회적 요인 등 지역요인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과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넷째, 질적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의 결정요인을 탐구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Gallie(2007)는 덴마크, 독일, 스웨덴, 영국, 핀란드 등의 사례를 통해 유럽사회에서 상생의 경제학

과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생산체제 유형에 따라 일자리의 질이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Graham 외(2016)는 사회서비스 복지사를 대상으로 업무현장의 조화와 업무성과에 대한 논의, 업무현장과 업무량에 대한 기대가 조화를 이룰수록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등 근무환경의 질이 높아짐을 나타내었다.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근로자의 기대를 잘 반영하는 경우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업무성과를 높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Mirvis(1992)는 비영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부기관이나 영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 일자리의 질(직무만족도)이 더 높지만, 조직에 더 헌신적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 외 국내에서는 송다영(2014)이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대상으로 학력과 근속년수가 일자리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연령, 여성, 경력단절 등은 부(-)의 영향을 미침을 분석하였다. 또한 박진영(2009)은 대구지역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탐색하였으며, 영리기관들과의 경쟁관계는 부(-)의 영향을, 종사자들의 개인역량, 관리기술과 재정적 관리 능력은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문순영·방대욱(2010)은 사회적 기업에서 임금, 작업환경, 교육/훈련, 기회평등, 고용안정성, 사회보장, 일자리 공동체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 질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민현주(2008)는 근무경험, 교육수준, 저임금 근로기간, 경력단절, 남성 직종이 여성의 일자리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 저임금 근로기간, 남성 직종은 부(-)의 영향을, 교육수준, 근로경험 등은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 산업 등의 고용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지역 수준에서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인 일자리 양과 질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다소 부족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국가, 개인, 조직단위에서 고용성과를 분석하였으며, 사회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국가단위에서 고용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고용성과를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았다. 둘째, 사회서비스 고용성과를 실증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는 연구가 다소 부진하였다. 즉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고용성과의 개념과 쟁점 등을 검토하거나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양적 분석방법으로 자료를 실증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 지역 요인이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경우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다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성과를 분석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단년도 자료로 활용하여 주요 영향요인 등을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도별 효과 등을 제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의 영향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방법을 보완하고자 한다. 먼저 고령화 등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성과를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본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인으로 지역수준의 요소,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고용성과의 결정요인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어떠한 지역 요인들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 다양한 차원으로 요인을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그 외에도 가능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09년부터 '14년까지 최근의 다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규모와 기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고자, 전국과 시·군에 대해 각각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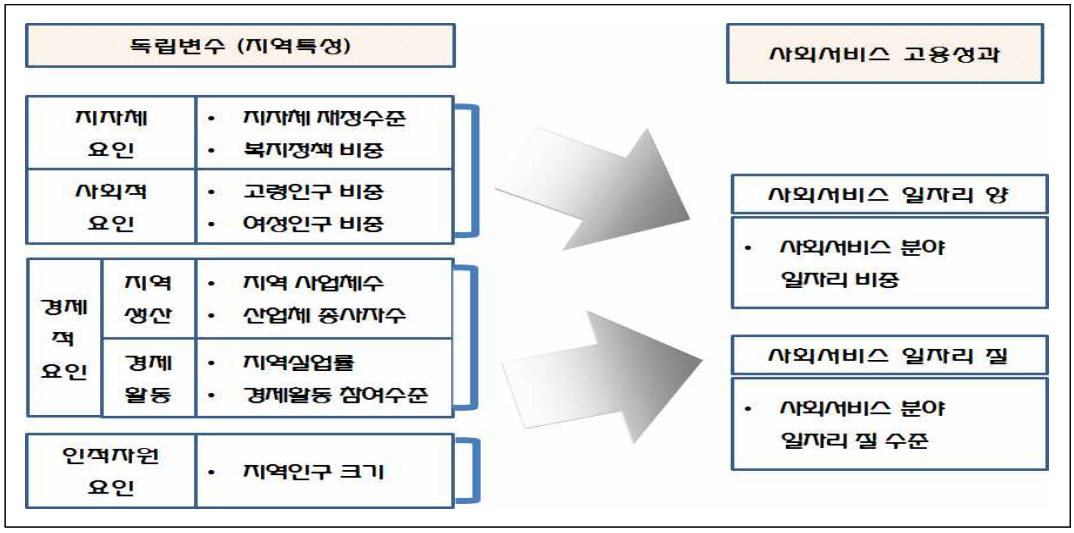
1. 분석 틀 및 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단위(분석단위)에서 어떠한 지역요인들이 다년간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09년에서 '14년까지 6개년도 지역단위 패널자료를 수집하여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관심변수인 고용성과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양적 측면인 지역수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중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질적 측면인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은 ILO와 Anker et al(2002)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의 개념을 활용하여 지역단위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수준을 산출한다. 또한, 영향변수인 주요 지역요인들은 Davis-Blake & Uzzi(1993), 조인숙 외(2015), 이지혜(2013), 최유진(2011), 최예나(2016) 등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정한다[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측면의 요인을 지방자치단체 측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인적자원 측면, 4분야로 분류하며[2],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잘 나타난다.

1) Davis-Blake & Uzzi(1993)는 정부감독과 특화된 훈련 등을, 조인숙 외(2015)는 지역내 총생산, 서비스업 취업비중 등을, 이지혜(2013)는 재정자립도, 복지비 비중, 노인인구 비중, 실업률 등을, 최유진(2011)은 종사자 수, 1인당 사업체 수 등을, 최예나(2016)는 지자체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고용성과 영향요인으로 사용함.

2) 오지은·송일호(2013)를 참고하여 주요 고용환경 요인으로 지리적 요인을 설정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지리적 요인을 수도권 여부 또는 광역시와 시, 군을 더미변수로 설정하는 경우 시간에 따라 불변하므로 고정효과모형에서 계수측정이 불가하여 본 모형의 영향요인에서 제외함.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그리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 등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측면의 요인은 이지혜(2013), Davis-Blake & Uzzi(1993) 등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과 복지정책의 비중으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이 풍족하고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을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가설 1) 지자체 요인은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1-1) 지자체 재정수준이 양호할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커진다.
(1-2) 지자체 복지정책비중이 커질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커진다.

둘째, 사회적 측면의 요인은 이지혜(2013), 최예나(2016) 등을 참고하여 지역내 고령자 비중과 여성인구 비중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해당지역에 고령자가 많을수록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고, 사회서비스 공급인력에 여성비중이 높으므로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요인은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2-1) 지역의 고령인구 비중이 클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커진다.
(2-2) 지역의 여성인구 비중이 클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커진다.

셋째, 경제적 측면의 요인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산업적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크게 지역생산 분야와 경제활동 분야로 세분화한다. 먼저 지역생산 분야는 최유진(2011), 조인숙 외(2015) 등을 참고하여 지역생산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로 구성하고, 경제활동 분야는 이지혜(2013), 최예나(2016) 등을 기반으로 경제활동 참여수준과 지역실업률을 사용한다.

지역생산 및 경제활동은 지역의 경기상황과 밀접하며 지역경기가 호황일수록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성과도 커질 것이다.

(가설 3) 경제적 요인은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3-1) 지역생산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커진다.
(3-1-1) 지역의 사업체수가 증가할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커진다.
(3-1-2) 지역의 산업체 종사자수가 증가할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커진다.
(3-2) 지역의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커진다.
(3-2-1) 지역실업률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작아진다.
(3-2-2) 지역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커진다.

넷째, 마지막 지역요인인 인적자원 측면의 요인은 지역인구의 크기로 설정한다. 모든 사업에서 인적자원은 매우 중요한 생산요소이므로 해당 지역에 인력이 충분하다면 사회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어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지역내 인적자원은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4-1) 지역내 인적자원이 풍부할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커진다.

2. 변수 및 측정지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변수를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종속변수인 고용성과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은 선행연구(박수지 외, 2013)를 참고하여 총 산업내 일자리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비중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은 임영찬(2014), 박은하(2011)의 연구방법[3]을 기반으로 일자리의 안정성과 보상수준 등을 반영한 측정지표를 설정한다.

둘째, 독립변수 중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과 복지정책 비중으로 구성하며,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은 총 재원 대비 자주재원의 비율(재정자립도)로 측정하고, 복지정책 비중은 총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비중으로 산정한다(이지혜, 2013). 그리고 사회적 요인은 고령자 비중과 여성인구 비중으로 구성하며, 고령자 비중은 총인구 대비 60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로 측정하고, 여성인구의 비중은 총인구 대비 여성인구의 비율로 측정한다(이지혜, 2013; 이철선 외, 2013). 또한, 경제적 요인 중 지역생산 분야는 지역사업체수와 산업체 종사자수로 설정하며 각각 지역인구수(천명당) 대비 사업체수와 산업종사자수로 측정한다(최유진, 2011: 169). 그 외 경제활동 분야는 지역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수준으로 측정하며, 전자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4]의 비중으로 후자는 총인구 대비 경제활동인

3) 임영찬(2014)은 정규고용, 고용안정성, 급여,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으로 좋은 일자리 지수를 구성하고, 박은하(2011)는 적절한 임금, 노동시간, 고용 안정성, 사회안정망, 일-가족 양립 등으로 일자리 지수를 구성함.

구[5]의 비중으로 산정한다(이지혜, 2013). 마지막으로 인적자원 요인은 지역인구로 설정하여 지역인구의 로그값으로 측정한다.

〈표 1〉 주요 변수 유형과 측정지표

구분	변수 유형		변수	측정지표
종속변수	고용성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	(사회서비스산업 종사자수 / 총 산업 종사자수) X 100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수준	w1*A+w2*B+w3*C+w4*D w1~w4: 가중치 A: 정규고용 여부, B: 상용직 정도 C: 근로기간, D: 급여수준
독립변수(지역특성)	지자체 요인		지자체 재정수준	재정자립도=((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X 100
			복지정책비중	(사회복지예산 / 지자체 예산) X 100
	사회적 요인		고령자 비중	(고령자인구(≥60세) / 총인구) X 100
			여성인구 비중	(여성인구 / 총인구) X 100
	경제적 요인	지역생산 수준	지역 사업체수	천명당 사업체수 = (사업체수 / 총인구) X 100
			산업체 종사자수	천명당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총인구) X 100
		경제활동 수준	지역실업률	실업율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X 100
			경제활동 참가수준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총인구) X 100
	인적자원 요인		지역인구	ln(지역총인구수)

3. 분석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 자료들을 활용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지역별 고용조사'를 사용하여 종속변수를 수집하였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각 지역의 고용현황을 통계청이 조사한 것으로 지역고용 분야의 대표적인 통계자료이다. 이는 지역고용정책 등 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고용구조와 현황을 시군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로 판단된다. 둘째, 독립변수 중 지방자치단체 특성 변수를 '재정고'를 통해 수집하였다. 재정고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재정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과 주요 재정지표를 얻는데 적합하다. 셋째,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독립변수 중 사회·경제적 요인과 인적자원 요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e-지방지표와 지역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회·경제·인적자원 요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2009-2014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지역단위 패널자료를 사용한다. 이는 시간변화와 무관하게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4) 지난 4주간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이지혜, 2013: 35).

5)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등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이지혜, 2013: 35).

또한,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패널모형을 사용한다. 패널모형은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통합(pooling)된 패널자료를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특히 이 방법은 횡단면 분석과 시계열분석의 한계인 누락변수(unobservable omitted variable)를 통제할 수 있어 사회과학 분야에서 자주 활용된다(변영진, 2013: 41). 패널모형에서 개별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에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있다. 이 중 고정효과모형은 분석모형의 설명변수와 관측되지 않은 개별효과가 상관관계를 가져 상수항에 반영된다고 가정하고, 이에 비해 확률효과모형은 관측되지 않은 개별효과가 설명변수와 상관관계가 없어 오차항에 반영된다고 가정한다(Rose, 2004; 정승호, 2013: 74). 두 모형 모두 장단점을 가지기 때문에 Hausman 검정을 통해 어느 모형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OLS 모형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Ⅳ. 자료 및 분석의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특성을 개괄하고, 모형에 포함하기에 부적합한 변수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표 3〉은 변수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파악하여 회귀식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최유진, 2011: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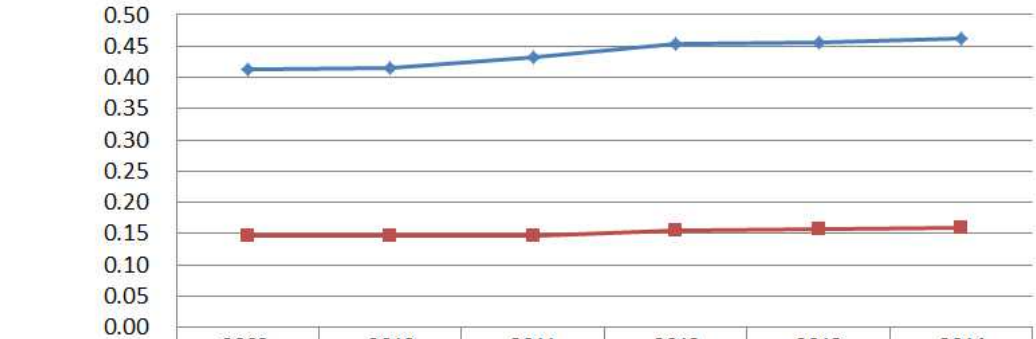
〈표 2〉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구분	측정변수		샘플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자체 요인	재정자립도(%)		978	7.2	92	26.51	16.89
	복지비중(%)		978	4.4	47	21.24	6.84
사회적 요인	고령자비중(60세이상)(%)		978	5.96	35.68	18.46	7.77
	여성인구비중(%)		978	44.12	52.56	49.79	1.13
경제적 요인	지역생산	천명당 사업체수	978	39.8	130.92	71.59	11.82
		천명당 종사자수	978	168.83	669.8	329.83	75.71
	경제활동	실업률(%)	978	0	6.2	1.80	1.13
		경제활동 참가율(%)	978	49.8	80.4	63.12	5.47
인적자원요인	지역인구(로그)		978	9.236	16.148	11.66	1.197
사회서비스 고용성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비중)		978	0.05	0.37	0.15	0.05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978	0.20	0.77	0.44	0.12

그리고 본 연구의 핵심변수이자 종속변수인 사회서비스 고용성과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로 구성되는데, '09년부터 '14년까지 지역별 고용성과 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은 최근 6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비중)은 '09년-'11년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되다가 '11년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2〉 연도별 지역의 사회서비스 고용성과 변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일자리 질	0.412	0.414	0.433	0.455	0.456	0.463
일자리 비중	0.147	0.147	0.146	0.155	0.156	0.160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09년-'14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은 서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어 초기 연구모형에 설정한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다.

〈표 3〉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Y1	Y2	X1	X2	X3	X4	X5	X6	X7	X8	X9
Y1	1										
Y2	0.421***	1									
X1	0.188***	0.807***	1								
X2	0.279***	0.656***	0.567***	1							
X3	-0.41***	-0.90***	-0.81***	-0.65***	1						
X4	-0.060	-0.36***	-0.22***	0.022	0.419***	1					
X5	0.090***	-0.12***	-0.30***	-0.18***	0.195***	-0.18***	1				
X6	-0.060	0.509***	0.370***	0.174***	-0.39***	-0.47***	0.336***	1			
X7	0.245***	0.639***	0.720***	0.584***	-0.72***	-0.15***	-0.24***	0.226***	1		
X8	-0.53***	-0.59***	-0.53***	-0.61***	0.73***	0.09***	0.18***	-0.13***	-0.56***	1	
X9	0.20***	0.73***	0.85***	0.71***	-0.77***	-0.04	-0.24***	0.261***	0.70***	-0.57***	1

주1: *=p〈.05, **=p〈.01

주2: Y1(사회서비스 일자리 양(비중)), Y2(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수준), X1(지자체 재정수준), X2(지자체 복지정책 비중), X3(고령인구비중), X4(여성인구 비중), X5(천명당 사업체수), X6(천명당 종사자수), X7(실업률), X8(경제활동참가율), X9(지역인구(로그))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요인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 때 분석단위는 지역단위이다. 전국의 지역단위 자료는 특·광역시 7개, 시 75개, 군 81개로 총 163개로, 6개 년도를 분석자료로 사용하면 총 표본수는 978개이다.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수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특·광역시에 비해 시·군의 규모나 기능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군 자료는 별도로 구분하여 일자리 영향요인을 분석·비교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의 양적측면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으로 측정하여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모형 1은 6개년 자료를 통합하여 Pooled OLS를 실시한 것으로 누락된 변수에 대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본 패널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Hausman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영가설이 $p<0.01$ 수준에서 기각되어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을 사용하였다. 모형 2는 전국 지역단위 패널자료에 대해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며 이 때, 지역효과는 고정된 값으로 상수항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모형 3은 전국의 시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모형 4는 전국의 군단위 지역에 대해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적용·분석한 결과이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경우, 전국단위를 분석할 때와 동일하게 Hausman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시단위 패널자료(chi2(9) = 53.8, Prob>chi2 = 0.00)와 군단위 패널자료(chi2(9) = 18.35, Prob>chi2 = 0.03)에서 각각 영가설이 기각($p<0.01$)되어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모형 1은 방법론상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형 2를 중심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지역별로 분석한 모형 3과 모형 4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전국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비중)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모형2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요인 중 지역내 고령자비중($t=-1.84$, $P<.10$)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경제적 요인은 지역생산 요인인 천명당 종사자수($t=-2.12$, $P<.05$)와 경제활동 요인인 경제활동참가율($t=-3.59$, $P<.01$)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연도 더미변수는 2011년($t=1.66$, $P<.10$), 2012년($t=4.78$, $P<.01$), 2013년($t=4.79$, $P<.01$), 2014년($t=5.03$ $P<.01$)일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전국의 시단위 지역에서만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모형 3에서는 첫째, 전국단위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경제적 요인 중 천명당 종사자수($t=3.03$, $P<.01$)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 요인에서는 여성인구비중($t=2.32$, $P<.05$)이, 그리고 경제적 요인에서는 지역생산 요인인 천명당 사업체수($t=3.03$, $P<.01$)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 외에도 시단위 지역에서는 지역인구(로그)($t=1.87$, $P<.10$)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에 영향을 미쳤으며, 연도 더미변수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의 군단위 지역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모형 4에서는 첫째, 전국단위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사회적 요인 중 고령자비중(t=-2.25, P〈.05)과 경제적 요인 중 경제활동참가율(t=-2.99, P〈.01)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연도별 더미변수는 전국단위의 결과와 동일하게 2011년(t=1.86, P〈.10), 2012년(t=4.48, P〈.01), 2013년(t=4.53, P〈.01), 2014년(t=4.59 P〈.01)일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표 4〉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의 결정요인 분석(고정효과 모형)

구분	변수		모형1 (OLS)		모형2 (FE)		모형3 (FE)		모형4 (FE)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z값
지자체 요인	재정자립도		0.000	−1.880*	0.000	0.470	0.000	1.17	0.000	−1.03
	복지비중		−0.002	−6.52***	0.000	−1.200	0.000	−1.26	0.001	1.5
사회적 요인	고령자비중 (60세이상)		−0.005	−13.34***	−0.003	−1.840*	0.004	1.47	−0.006	−2.25**
	여성인구비중		0.008	5.79***	0.004	1.220	0.018	2.32**	0.004	0.99
경제적 요인	지역 생산	천명당 사업체수	0.001	9.03***	0.000	0.230	0.001	3.03***	−0.001	−1.26
		천명당 종사자수	0.000	−12.4***	0.000	−2.120**	0.000	−1.77*	0.000	−1.27
	경제 활동	실업률	0.001	0.510	0.000	−0.400	−0.001	−0.95	0.001	1.03
		경제활동 참가율	−0.003	−9.89***	−0.001	−3.59***	−0.001	−1.29	−0.001	−2.99***
인적자원 요인	지역인구(로그)		−0.010	−5.06***	−0.004	−0.200	0.049	1.87*	−0.014	−0.38
연도 더미	2010년		0.005	1.480	0.002	1.210	0.001	0.4	0.001	0.25
	2011년		0.010	2.75***	0.004	1.66*	−0.004	−1.3	0.006	1.86*
	2012년		0.022	5.84***	0.015	4.78***	0.000	−0.05	0.021	4.48***
	2013년		0.031	7.75***	0.019	4.79***	−0.001	−0.11	0.027	4.53***
	2014년		0.044	9.86***	0.027	5.03***	−0.001	−0.11	0.037	4.59***
상수			0.210	3.03***	0.143	0.480	−1.391	−2.65***	0.347	0.73
표본수			978		978		450		486	
F값			68.63***		13.65***		7.18***		8.32***	
R^2			0.499		0.3444		0.003		0.151	

*p 〈 0.10, **p 〈 0.05, ***p 〈 0.01

주: 모형 2에 대해 Hausman 검정 결과, chi2(9) = 32.81, Prob〉chi2 = 0.00으로 영가설이 p 〈 0.01 수준에서 기각되었으므로 본 연구는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함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여 '좋은 일자리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의 질적 측면(일자리 질)을 측정하여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사회서비스 고용성과

의 양적 측면을 분석한 경우와 동일하게 모형 1은 Pooled OLS를 실시한 것이고, 모형 2는 전국을 대상으로 수집한 패널자료에 Hausman 검정(chi2(9) = 53.04, Prob>chi2 = 0.00)을 실시하여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인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모형 3은 전국의 시단위 지역에 대해, 모형 4는 전국의 군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적용한 결과이다. 이 때, 시단위 패널자료(chi2(9) = 25.49, Prob>chi2 = 0.002)와 군단위 패널자료(chi2(9) = 24.96, Prob>chi2 = 0.003)에 대해 각각 Hausman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영가설이 기각(p<0.01)되어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목적에 가장 적합한 모형 2는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고용성과의 질적 측면)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첫째, 지자체 요인 중 재정자립도(t=-3.11, P<.01)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 중 지역내 고령자비중(t=-5.45, P<.01)과 지역내 여성인구 비중(t=3.21, P<.01)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경제적 요인은 경제활동 요인인 실업률(t=-3.09, P<.01)과 경제활동참가율(t=11.56, P<.01)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연도 더미변수는 2010년(t=2.74, P<.01), 2011년(t=7.59, P<.01), 2012년(t=11.79, P<.01), 2013년(t=9.76, P<.01), 2014년(t=8.77, P<.01)까지 모두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시단위 지역자료에 대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모형 3은 첫째, 전국 대상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사회적 요인 중 고령자 비중(t=3.03, P<.01)과 경제적 요인 중 경제활동 요인인 실업률(t=-3.09, P<.01) 및 경제활동참가율(t=11.56, P<.01)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연도별 더미변수 역시 2010년(t=2.74, P<.01), 2011년(t=7.59, P<.01), 2012년(t=11.79, P<.01), 2013년(t=9.76, P<.01), 2014년(t=8.77, P<.01) 모두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국의 군단위 지역자료에서 영향요인을 분석한 모형 4는 첫째, 전국단위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지자체 요인 중 재정자립도(t=-3.11, P<.01)와 사회적 요인 중 지역내 고령자비중(t=-5.45, P<.01) 및 여성인구 비중(t=3.21, P<.01)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경제적 요인에서는 경제활동 요인인 경제활동참가율(t=11.56, P<.01)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게다가 연도별 더미변수에서도 전국대상 결과와 유사하게 2011년(t=1.86, P<.10), 2012년(t=4.48, P<.01), 2013년(t=4.53, P<.01), 2014년(t=4.59 P<.01)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군단위 지역에서는 지자체 요인 중 복지비중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표 5〉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의 결정요인 분석(고정효과 모형)

구분	변수		모형1 (OLS)		모형2 (FE)		모형3 (FE)		모형4 (FE)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z값
지자체 요인	재정자립도		0.001	8.54***	−0.001	−3.11***	0.000	−0.6	−0.002	−3.91***
	복지비중		0.001	2.16**	0.000	1.29	0.000	0.21	0.001	1.8*
사회적 요인	고령자비중 (60세이상)		−0.014	−33.21***	−0.012	−5.45***	−0.013	−3.8***	−0.012	−3.68***
	여성인구비중		0.012	8.58***	0.013	3.21***	0.015	1.46	0.014	2.81***
경제적 요인	지역 생산	천명당 사업체수	0.000	−0.65	0.000	1.00	0.001	1.41	0.000	0.4
		천명당 종사자수	0.000	9.50***	0.000	0.33	0.000	−0.26	0.000	0.79
	경제 활동	실업률	−0.002	−0.96	−0.003	−3.09***	−0.006	−5.05***	0.000	0.16
		경제활동 참가율	0.003	7.96***	0.004	11.56***	0.005	9.42***	0.003	6.97***
인적자원 요인	지역인구(로그)		−0.014	−6.41***	0.005	0.19	0.036	1.03	0.009	0.19
연도 더미	2010년		0.005	1.36	0.006	2.74***	0.007	2.32**	0.006	1.65
	2011년		0.025	6.31***	0.021	7.59***	0.020	4.82***	0.024	5.91***
	2012년		0.053	13.21***	0.048	11.79***	0.047	7.76***	0.048	8.1***
	2013년		0.058	13.82***	0.052	9.76***	0.054	6.6***	0.052	6.52***
	2014년		0.067	14.31***	0.062	8.77***	0.063	5.82***	0.060	5.79***
상수			−0.065	−0.89	−0.355	−0.90	−0.897	−1.26***	−0.421	−0.68
표본수			978		978		450		486	
F값			722.9***		113.9***		84.47***		39.17***	
R^2			0.9131		0.846		0.7028		0.6894	

*p 〈 0.10, **p 〈 0.05, ***p 〈 0.01

주: 모형 2에 대해 Hausman 검정 결과, chi2(9) = 53.04, Prob〉chi2 = 0.00으로 영가설이 p 〈 0.01 수준에서 기각되었으므로 본 연구는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함

위의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전국단위에서 본 연구의 가설 검정결과를 요약하면, “(2-2) 지역의 여성인구 비중이 클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일자리 질)가 커진다.”와 “(3-2-1) 지역실업률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일자리 질)가 작아진다.”, “(3-2-2) 지역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일자리 질)가 커진다.”는 가설이 채택되었고, 그 외 “(가설 1) 지자체 요인은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지역내 인적자원은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등은 기각되었다. 그리고, ‘시’단위에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한 결과, “(2-2) 지역의 여성인구 비중이 클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일자리 양)가 커진다.”와 “(3-1-1) 지역의 사업체수가 증가할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일자리 양)가 커진다.”, “(3-2-1) 지역실업률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일자리 질)가 작아진다.”, “(3-2-2) 지역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일자리 질)가 커진다.”, “(4-1) 지역내 인적자원이 풍부할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일자리 양)가 커진다.”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또한 ‘군’단위에서는 “(1-2) 지자체 복지정책

비중이 커질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일자리 질)가 커진다.”와 “(2-2) 지역의 여성인구 비중이 클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일자리 질)가 커진다.”, “(3-2-2) 지역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일자리 질)가 커진다.”는 가설이 채택되어 지역규모에 따라 가설검정 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가설 검증 결과

가설	소가설	검증결과	
(가설 1) 지자체 요인은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1-1) 지자체 재정수준이 양호할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커진다.	양적	기각
		질적	기각
	(1-2) 지자체 복지정책비중이 커질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커진다.	양적	기각
		질적	기각
(가설 2) 사회적 요인은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2-1) 지역의 고령인구 비중이 클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커진다.	양적	기각
		질적	기각
	(2-2) 지역의 여성인구 비중이 클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커진다.	양적	기각
		질적	채택
(가설 3) 경제적 요인은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3-1) 지역생산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커진다.		
	(3-1-1) 지역의 사업체수가 증가할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커진다.	양적	기각
		질적	기각
	(3-1-2) 지역의 산업체 종사자수가 증가할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커진다.	양적	기각
		질적	기각
	(3-2) 지역의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커진다.		
	(3-2-1) 지역실업률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다.	양적	기각
		질적	기각
	(3-2-2) 지역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커진다.	양적	기각
		질적	채택
(가설 4) 지역내 인적자원은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4-1) 지역내 인적자원이 풍부할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양과 질)가 커진다.	양적	기각
		질적	기각

4. 분석적 시사점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요인인 재정자립도와 복지정책 비중의 영향이다. 지방자치단체 요인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재정자립도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요인이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제조업 등 일반 산업에 대한 경기부양 노력이 활발하여 해당 산업들이 성장하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회서비스 분야는 질적측면(일자리의 질)을 중심으로 고용성과가 저조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개인단위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사회서비스 일

자리의 질이 개선된다는 최예나(2016)의 연구결과와 다소 상충된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군단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등 제 3의 변수가 재정자립도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군단위 지역에서는 복지정책 비중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조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함을 나타낸다.

둘째, 사회적 요인인 지역 내 고령자 비중과 여성인구 비중의 영향이다. 지역내 고령자 비중은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인구 비중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자의 비중이 커질수록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고령이 많아지면서 근무조건과 고용안정성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여성인구 비중이 증가하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서비스 제공능력이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이 높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군단위 지역에서 두드러졌으며, '군'수준에서는 여성인력이 사회서비스 공급인력의 근무조건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시단위에서는 여성인구 비중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여성이 사회서비스 공급인력으로 중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경제적 요인인 지역생산 요인(지역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과 경제활동 요인(경제활동참여율과 지역실업률)의 영향이다. 먼저 지역생산 요소 중 지역내 산업체 종사자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즉 지역인구 대비 산업체 종사자수로 측정되는 지역생산 수준이 높을수록 기타 산업활동이 활발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이는 주로 시단위 지역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시'에서는 지역내 산업체수가 늘어날수록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는 지역경기의 활성화로 사업체수가 증가하면 사회서비스 공급 사업체수가 증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경제활동 요소 중 실업률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지역경기 악화로 지역내 실업률이 높으면, 사회서비스 일자리 역시 안정성 등 근무조건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주로 시단위 지역에서 나타난다. 이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경기가 부양되는 등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사회서비스 외 기타 산업의 일자리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는 줄어드는 반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더 좋은 근무조건이 제공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비스업 일자리 참여가 지역고용율과 부(-)의 관계를 가진다는 주장(조인숙 외, 2015; 최예나, 2016)을 지지한다. 그 외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은 주로 군단위 지역에서 줄어들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의 개선효과는 시군에서 모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넷째, 인적자원 요인인 지역인구 크기의 영향이다.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지역인구로 측정한 지역내 인적자원이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인 일자리 양과 질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내 인적자원이 많을지라도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증대되거나 일자리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단위에서는 지역내 인적자원이 풍부하면 사회서비

스 일자리 참여가 증가하여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다섯째, 연도별 더미변수의 영향이다. 2010년의 특성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그 외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도 더미변수는 각 연도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08년 대비 2009년에 크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지역별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해마다 꾸준히 지역별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고 일자리 질 수준 역시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2).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과 지속적인 사회수요의 증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도별 더미변수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군단위 지역에서 나타났으며, 2010년 더미변수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주로 시단위 지역에서 보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일자리 양과 질)를 결정하는 주요 영향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단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단년도 자료 중심의 횡단 분석에 집중되어 시간요인과 기타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시간, 지역특성, 기타 누락변수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패널자료를 구성하고 이에 적합한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주요 영향요인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주요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동시에 지역규모와 기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시'와 '군'수준의 영향요인을 별도로 분석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사회적 요인 및 경제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요인들이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지자체 요인 중 지역내 고령자 비중과 천명당 종사자수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에, 그리고 재정자립도와 지역내 고령자 비중 및 실업률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여성인구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고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서비스 고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지라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질적 측면(일자리 질)이 더 저조한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미미함을 보여주며, 특히 군단위에서 일자리 질의 상대적 하락현상이 두드러져 '군'단위의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근무조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군'단위 지역은 복지정책 비중이 높을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정부는 복지정책을 확대하여 사회서비스 고용성과까지 높이는 운영형태가 적합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령자 비중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고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령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주요 수요계층 중 하나로 이들 구성비율이 높을수록 지역내 서비스 수요가 서비스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인력이 부족하여 일자리 양이 줄어들고, 서비스 공급인력의 평균연령대도 높아져 서비스 질 저하와 종사자의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약화되는 등 고용성과에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서비스 참여의사와 지원인력을 확대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구비하여 인력자원의 능력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 고용성과를 증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군'지역의 경우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부족현상이 두드러져 추가 공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전략이 긴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 종사자수로 측정한 지역생산이 증가하거나 지역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기타 산업과 사회서비스 산업이 함께 활성화되도록 균형있는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생산량이 증가하거나 경제활동이 활발한 등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산업전체 일자리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 종사자가 줄어들거나 증가하지 않으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지역의 경우, 지역내 산업체 수가 증가하면 사회서비스 공급업체나 관련업체 등도 많아지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 경기회복으로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일자리 질 수준이 높아진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종합적인 산업정책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사회서비스 공급기관들을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산업의 동반성장과 고용성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이철선 외, 2013; 김혜원 외, 2006).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활용 등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인력을 늘리고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지역의 인적자원이 풍부하여도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은 해당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유형과 사회서비스 질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홍보하여 서비스 수요를 늘리는 한편, 우수한 인력들이 사회서비스 공급활동에 참여하도록 유인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인적자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시'지역에서는 여성인구 비중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여성인력이 서비스 생산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구직 편의시설을 증대하고 관련 기관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성들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군'지역에서는 여성인력이 많으면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성인력 교육과 여성인력 활용방안이 중요하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산업과 고용성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새로운 정책들로 인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과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두

가지 측면의 사회서비스 고용성과를 균형있게 조화·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년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김기호·이규용. (2011). 고용성과의 결정요인 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성과의 국제비교」, 81-125. 한국노동연구원.

김은정. (2014). 사회서비스 재정의 지방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방안. 「지방정부연구」, 18(1): 219-241.

김은하. (2007). 일자리의 질과 노동생산성 및 분배의 관계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복지정책」, 30: 115-141.

김혜원. (2010).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연구총서」, 1: 261-299.

김혜원 외. (2006).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문순영. (2008). 돌봄노동 일자리의 일자리 질(quality of job)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3: 207-237.

문순영·방대욱. (2010). 인증사회적기업의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일자리와의 비교.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3: 121-154.

민현주. (2008). 여성취업의 두 갈래길: 상위와 하위 수준 일자리 진입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Who Gets a Good Job?. 「경제와 사회」, 78: 223-255.

박수지 외. (2013).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은하. (2011). 성별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결정요인 연구. 「한국여성학」, 27(3): 1-38.

박진영. (2009). 「사회적일자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대구지역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방하남·이상호. (2006).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한국사회학」, 40(1): 93-126.

변영진. (2013). 「패널자료를 이용한 원자력발전량의 영향요인 분석 – 영향요인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송다영. (2014). 사회복지부문 돌봄 관련 일자리의 질 저하에 관한 연구. 「젠더와 문화」, 7(1): 7-42.

오지은·송일호. (2013). 고령자의 취업여부와 근무형태 및 직종별 취업결정 요인 실증분석. 「사회과학연구」, 20(3): 24-54.

이성균. (2009). 중장년층의 취업과 괜찮은 일자리. 「한국사회정책」, 15(2): 181-216.

이재원. (2011).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책과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5(4): 333-359.

이지혜. (2013). 「복지형 일자리사업 지출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철선 외. (2013).「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영찬. (2014).「중·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과 일자리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 15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대학원.
전병유. (2006). 우리나라 지역 간 고용격차에 관한 연구.「동향과 전망」, 68: 205-235.
정승호. (2013). 관광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국내유명관광지를 대상으로).「관광학 연구」, 34(3): 55-78
조인숙·고석관. (2015). 지역의 고용시장 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지역발전연구」, 24(1): 37-83.
최예나. (2016).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과 질의 결정요인 분석-개인특성과 지역요인의 영향을 중심으로-.「한국자치행정학보」, 30(1): 369-393.
최옥금. (2005).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일자리를 중심으로.「노동정책연구」, 5(1): 1-42.
최유진. (2011).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으로서의 지역문화: 시군 단위 지방정부의 패널분석.「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1): 163-185
최희경. (2009).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개념의 노인 돌봄 서비스직에 대한 적용.「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27-57.
「한국금융신문」. (2016). 혼용무도의 선거마케팅. 4. 11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51055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타법개정 2015.7.24, 법률 제13426호).

Belot, M., & Van Ours, J. C. (2000). Does the Recent Success of Some OECD Countries in Lowering Their Unemployment Rates Lie in the Clever Design of Their Labour Market Reforms?. *Oxford Economic Papers*, 56(4): 621-642.
Browning, H. L., & Singelmann, J. (1978).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Labor Force: The Interaction of Industry and Occupation. *Politics & Society,* 8(3-4): 481-509.
Davis-Blake, A., & Uzzi, B. (1993). Determinants of Employment Externalization: A Study of Temporary Workers and Independent Contractor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8(2): 195-223.
Elfring, T. (1988). *Service Sector Employment in Advanced Econom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its Implications for Economic Growth*. Adlershot, UK: Gower Publishing Company Limited.
EU. (2001). *Employment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Gallie, D. (2007). Production Regimes and the Quality of Employment in Europ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1): 85-104.
Graham, J. R., Shier, M. L., & Nicholas, D. (2016). Workplace Congruence and Occupational

Outcomes among Social Service Worker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6: 1096-1114.

ILO. (1999). *Decent Work: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Geneva: ILO.

_____. (2001). *Reducing the Decent Work Deficit: A Global Challenge.* Geneva: ILO.

Mancini, M. A., & Lawson, H. A. (2009). Facilitating Positive Emotional Labor in Peer-Providers of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33(1): 3-22.

Mirvis, P. H. (1992). The Quality of Employment in the Nonprofit Sector: An Update on Employee Attitudes in Nonprofits Versus Business and Government.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3(1): 23-41.

Monastiriotis, V. (2006). *Macro-Determinants of UK Regional Unemployment and the Role of Employment Flexibility.* EI Working Paper 2006-01. European Institute.

OECD. (2003). *OECD Employment Outlook: Towards More and Better Jobs.* OECD.

Ritter, J. A., & Anker, R. (2002). Good Jobs, Bad Jobs: Workers' Evaluations in Five Countri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1(4): 331-358.

Rose, A. K. (2004). Do We Really Know that the WTO Increases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94(1): 98-114.

Scharpf, Fritz. (1990). Structures of the Post-Industrial Society, or Does Mass Unemployment Disappear in the Service and Information Economy?. In E. Appelbaum & R. Schettkat(eds.). *Labor Market Adjustments to Structural Change and Technological Progress*, 17-35. New York: Praeger.

Van Damme, M., Kalmijn, M., & Uunk, W. (2009). The Employment of Separated Women in Europe: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Determinant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2): 183-197.

최예나(崔睿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관리(민간위탁), 사회서비스정책, 복지정책, 지방행정 등이며, 최근 연구로 '계약관리요인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성과에 관한 연구(2014)', '의료서비스분야의 편의적 선취(cream-skimming)에 관한 예비적 고찰(2012, 공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 효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2012, 공저)' 등이 있다(luckpink@naver.com).

〈논문접수일: 2016. 7. 14 / 심사개시일: 2016. 7. 27 / 심사완료일: 2016. 8. 18〉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Factors and Performance of Social Service Employment

Choi, Yena

This study is to analyze determinants of quantity and quality in social service employment focusing on regional factors like local government characteristics, social factors, economic factors, human resource factors. In order to analyze, multi-year's regional employment data and panel analysis are used.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scal self-reliance ratio makes a negative influence on quality. Ratio of the aged makes a negative influence on quantity and quality of employment. And, ratio of the woman makes a positive influence on quality. Number of employee makes a negative influence on quantity and unemployment rate makes a negative influence on quality, but activity rate makes an influence on quantity negatively and on quality positively. Based on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region with high fiscal self-reliance ratio or high local production, high activity rate must facilitate social service sectors. Second, region with high ratio of the aged needs to strengthen quantity and quality in social service employment. Third, local authorities must increase supply of social workers and improve the quality of employment through developing woman power. Four,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improve constantly social service industry and employment performance.

Key Words: Social Service, Social Service Employment, Quantity of Employment, Quality of Employment, Regional factor